

2013.03

BIZ.PUSAN.AC.KR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효원경영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NEWSLETTER

2013 Vol.4



SPRING IS COMING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효원경영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NEWSLETTER 2013 Vol.4

C O N T E N T S

- 04 인사말**
인사말 _최종열
- 08 뉴스 단신**
주요 뉴스 / 교수 동정 / 장학 / 대학 행사 / 학생 수상 /
국제 관련 / MBA / AMP / 동문회
- 28 교수 칼럼**
진정성이 요구되는 시대 _서문식
오늘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_곽춘중
- 32 동문 칼럼**
Stay hungry, Stay foolish _강태길
경매인의 자긍심, 회한, 당부 _배수연
- 36 명사 칼럼**
국가 경쟁력의 기본은 안전문화 정착에서 시작된다 _이동성
- 40 학생 칼럼**
원혜행 야간열차를 타세요 _이충현
유학생활 참 좋다 _비 링샤오
한국은행 취업후기 _이소정
공인회계사 합격 후기 _정지훈
MBA가 주는 선물 _지대연
청년행복시대를 바라며 _조영환
- 56 주요 행사 및 학생참가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인터뷰 _김소희, 김학수
기회는 기다리는 것도, 잡는 것도 아니다. 기회는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_구민규
경매 토크 콘서트 '박서원'편 _홍윤우
- 62 경영대학 발전기금**
- 67 편집후기**

발행일 2013.03

발행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발행인 최종열

홈페이지 <http://biz.pusan.ac.kr> 전화 051.510.1659~60,1678 팩스 051.581.3144

편집장 김경영 편집원 정정민, 문송이, 유송이

편집디자인 Winner's PT 인쇄 ㈜우진문화사

학장 인사말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도 물러가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은 모두의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이한 금정산 자락 효원에는 새봄과 함께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생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전략적 사고를 겸비한 글로벌 경영인재 양성을 위해 62년 역사의 상과대학에서 분리 독립한 경영대학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13년 신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1학기에는 국내 경영교육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겨울방학동안 국제경영교육인증(AACSB)을 위한 SAP 초안을 완료했으며, 곧 완성하여 4월 중에는 AACSB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제경영교육인증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화를 위해 작년에 미국 Rutgers 대학교와 MOU 체결하였으며, 큐슈대학교와는 경영대학원 협력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Rutgers 대학교 및 큐슈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제협력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영가족 여러분들의 성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가을에 경영대학 발전 후원회를 발족 시켰습니다. 경영가족 1인 1계좌 갖기 운동 등 경영가족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외 파견 학생들과 CPA 준비생들을 지원하는 경영대학 자체 장학금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수님들의 연구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수님들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우수논문 인센티브제를 마련하였으며, 2월에 처음으로 두 분의 교수님들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부문에서는 이미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경영대학이 조만간 국제 학술지 게재논문 부문에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랑의 밥차활동, 환경정화운동 참여, 효원경영가족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특히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학부, 경영대학원, AMP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 포기의 김장을 담그어 금정구의 취약계층에 전달한 행사로, 모든 효원경영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가 컸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대학의 발전은 경영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동참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경영가족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경영대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효원 경영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년 3월

경영대학 학장 최 종 열

NEWS BRIEF

뉴스 단신



08

MAIN NEWS

주요뉴스

10

PROFESSOR NEWS

교수동정

11

SCHOLARSHIP

장학

12

UNIVERSITY EVENT

대학행사

19

STUDENT AWARD

학생수상

20

INTERNATIONAL

국제관련

21

MBA

MBA

23

AMP

AMP

25

ALUMNI ASSOCIATION

동문회

MAIN NEWS

주요 뉴스



AACSB 취득 사례 공유 세미나

10월 18일, 부산대학교 상학관 207호 강의실에서 전남대학교 고일상 교수의 AACSB 취득 사례 공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AACSB Standard Alignment Plan 자료 공유 및 검토, 국내대학 Vision & Mission 정보 공유, 실시간 파견 소식에 대한 나눔이 있었다. 고일상 교수는 본인은 방학 중 Standard Alignment Plan 작성을 완료하고 AACSB 국제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을 밝히며 앞장서서 대학 간 정보공유에 힘썼다.

국제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 인센티브 지급

경영대학은 학과 교수가 국제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영 관련 국제 우수학술지는 전공별 TOP3와 기타 우수학술지로 구분된다. 학술연구논문 게재를 장려함으로써 교수들의 프라이드를 고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 연구자를 배출하여 명실공히 초일류 경영대학으로 발전시켜 부산대학교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전공별 TOP3 게재논문의 주 저자 또는 교신저자일 때 3,000만 원, 공동 저자일 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기타 우수학술지 게재논문의 주 저자와 교신저자일 때 300만 원, 공동저자면 저자 수로 나누어 지급하되 교수 1인당 기타 우수학술지 게재논문의 1년 총 포상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센티브 재원은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기금, 계약학과 간접비, 기타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2012년 국제우수학술지 논문게재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신중국 교수와 고광수 교수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각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다.

경영컨설팅학전공(계약학과) 박사과정 개설



2013년 3월, 경영대학이 신규 경영컨설팅학전공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 요건은 소속 기업체(또는 기관)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학과 개설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학은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 서류를 갖추어 최종 합격한 후 등록하면 가능하다. 현재 2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협약 체결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25명으로, 학위명은 경영컨설팅학 박사(Ph.D. of Business Consulting)로 수여된다. 학과 전공주임은 김정교 교수, 책임교수는 김명종 교수가 맡게 되었다.

경영대학 소속 교수 및 경영연구소 연구비 지원

2013년 경영대학이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매년 6명을 선정하여 1인당 150만 원의 교수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영연구소의 간접비 재원으로 4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수 연구비 재원은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기금과 경영연구소 간접비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수들은 경영연구소의 연구지원사업에 따른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발족

경영대학의 연구·교육활동과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발전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상과대학 경맥발전기금'에서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2년 10월 8일부터 정식으로 경영대학 발전후원회를 구성하였다. 11월 16일부터 고유번호증 및 법인으로 여겨지는 단체지정 승인을 취득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 중이다. 발전기금은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동문의 기부금, 경영대학(원) 연구비 조성 지원금, 학부모 기부금, 경영대학 전임교수에게 지원되는 연구비에서 징수한 간접연구경비의 출연금, 기타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발전기금 출연자에게는 연말에 감사의 뜻을 담은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후원회의 주요 사업은 경영대학 교수의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 경영대학(원)의 홍보 사업, 경영대학 학부생 및 경영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의 장학 지원 사업, 기타 본 발전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으로 규정되며,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 중이다.

경영대학 동문 주소록 업데이트



2011년도부터 경영대학 동문 주소록을 매학기 업데이트 중이다. 현재까지 총 2,500여 건에 달하는 주소록을 직접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발송을 통한 회신으로 현재 1,500여 건으로 정비하였으며, 계속하여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문 주소록 업데이트는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 경영 등 다양한 대학 소식자료 발송을 위한 것으로 대학과 동문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PROFESSOR NEWS

교수 동정



이장우 교수 해외파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장우 교수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여 년간 미국에 파견되었다. 파견기관은 Blowing Green State University로, 기업 지배구조 및 문화가 인적 자원 투자, R&D, 자본지출, 마케팅 투자에 따른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선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무성 교수가 2012년 12월 14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사)한국금융공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되었다. 한국금융공학회는 2001년에 출범하여 기업 재무, 금융, 투자 및 파생상품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앞으로 회장 임기 동안 한국금융공학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CHOLARSHIP

장학



인산장학금

1월 18일, 경영대학 학장실에서 13학년도 1학기 인산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정준수 명예교수의 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인산장학금은 매학기 경영학과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뿐만 아니라 학과발전에 기여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이다. 수여식에는 수여자 10명을 대표하여 2013학년도 학생회장 및 부회장인 김학수(경영12) 학생과 김소희(경영12) 학생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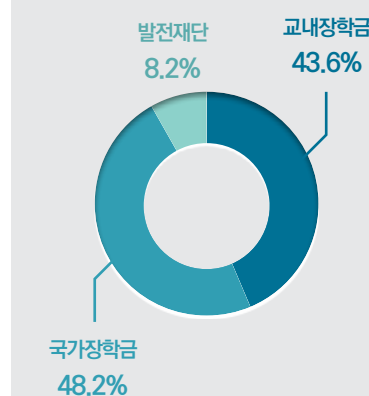
교환학생 등 장학금 지원

CPA 1차 시험 합격자에게 1차로 전반기 24명을 지원하고 후반기 추가 신청자 4명에 대하여 2차로 각 50만원씩 지원한 것에 이어, 해외 교환학생에게는 전반기 7명, 후반기 15명에게 1인당 57만원씩을 경영대학 발전후원금으로 지원하였다. CPA 시험 합격자와 해외 교환학생에 대한 이와 같은 장학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상과대학 장학금

수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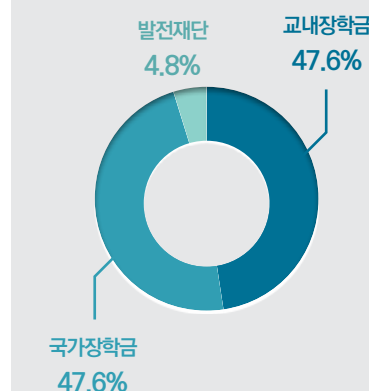
수혜율: **55.86%**



경영대학 장학금

수혜현황

수혜율: **68.09%**



UNIVERSITY EVENT

대학 행사



경맥 토크 콘서트 박서원 편



9월 24일, 부산대학교 10·16 기념관에서 빅앤트 인터네셔널 박서원 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경영대학 학생회장의 강연 초청에 박서원 대표는 강연비와 식비, 교통비를 일절 사양하며 흔쾌히 응하였다. 강연 당일, 10·16 기념관에 있는 의자가 모자라 각 통로와 무대 앞, 무대 위까지 앉아야 할 정도로 많은 학생이 참석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석한 모든 학우가 만족할 만한 알찬 내용의 강연이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2012 경맥 토크 콘서트를 통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의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의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

캠퍼스 금융토크



9월 26일, 부산대학교 대학 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캠퍼스 금융 토크가 개최되었다.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계 인사가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여 대학생들과 금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며 금융업계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쌍방소통형 토론이 진행되었다.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토론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강연자로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 김상원 부산지원장, 부산은행 성세환 은행장 등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 보험사의 임원급 인사가 참여하여 주제 관련 영상물 시청, 금융 현안 주제에 관한 토론을 나누었고, 참석자들과의 자유 토크와 함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경맥제



9월 27일, 경영대학 학생들의 연례행사인 경맥제가 개최되었다. 낮에는 주막과 다양한 이벤트, 다코야키, 세계맥주, 타로, 커피, 솜사탕 등의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늦은 7시부터는 개그맨 황현희의 진행 아래 경맥 가요제가 진행되었다. 재능 넘치는 학생이 다수 참가하여 끼를 발산하면서 가요제의 무대를 열기로 가득 채웠다. 세심한 준비와 멋진 무대로 경맥제는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1박 2일 견학

11월 9일~10일,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의 금융감독원 견학이 진행되었다. 지난 캠퍼스 금융 토크 당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아쉬움에 금융감독원 측에서 1박 2일 견학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총 1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번 금감원 견학에서는 금감원장과의 멘토링을 시작으로 부산대 동문 금감원 직원과의 멘토링, 외환은행, JP모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현장방문 금융교육과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 ICT 희망토크

10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대학생 ICT 희망 토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지속가능 과학회 주관으로 정보·방송·통신(ICT) 대연합과 부산대, 전남대 외 지역별 개최 대학의 후원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고대식 한국정보기술학회장의 'ICT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이석우(주)카오톡 대표의 창업 정신에 대한 강연, 그리고 경영대학 이장우 교수의 학생과 함께하는 열린 희망 토크로 이루어졌다. 100여 분 동안 진행된 행사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본 후원기관의 지속적인 취업지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등 알찬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012학년도 2학기 경영대학 지도교수 면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영대학 11학번과 12학번을 대상으로 한 경영대학 지도교수 면담이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경영인 중사무국에서 SMS를 통해 면담 일자와 장소 등을 공지 받은 후 지도교수와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 면담을 마친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강 신청부터 동아리, 아르바이트, 장학금, 대외 활동 등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던 중, 교수님과의 면담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학생 수가 많은 경영대학 특성상 교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교수님께 직접 유익한 이야기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소감 등을 전했다. 지도교수들 또한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 대학이다. 학생들의 상황과 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앞으로도 지도교수와의 면담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더불어 학생들과 교수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는 유화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 공인회계사 시험 설명회



PNU 캠퍼스 토크 및 취업설명회



11월 1일,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이전 4개 금융공기업과 함께하는 'PNU 캠퍼스 토크 및 취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과 자산관리공사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캠퍼스 토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영철 CEO의 '공기업의 인재 표준 모델에 대한 특강'으로 시작되었으며 많은 학생이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하였다. 이후 진행된 각 금융공기업의 취업설명회에서는 기관별 소개와 홍보 영상 시청, 그리고 채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약 7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PNU 캠퍼스 토크 및 취업설명회'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의 길을 밝혀준 좋은 기회였다.

PNU Campus Talk & Job Fair

11월 1일, 상학관 109호에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3 공인회계사 시험 설명회'가 열렸다. 금감원은 지방소재 대학에 인재들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정보의 확보가 힘든 지방의 환경을 고려하여, 본래 전국 주요 대학에서 실시했던 설명회를 올해는 지방에서만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인회계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본교 합격자 합격사례 발표와 일대일 시험제도 상담, 지도교수와의 간담회 등이 이루어졌다. 또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개정판 '2013년도 공인회계사시험 길라잡이' 책자가 배부되었다. 앞으로도 부산대의 지속적인 회계 인재 배출이 기대된다.



한아로 행사

11월 15일, 상학관 B동 109호에서 경영대학 내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한아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 처음 개최된 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한아로 행사는 국적이 다른 학생들 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다른 나라의 친구를 사귀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경영대학 학생회 MATE의 주최 아래 여러 가지 게임과 뒤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아로 행사의 가장 큰 장점이며, 실제로 경영대학의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한아로 행사를 통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해왔다.



경영대학 3대 학생회장 선출

경영대학 2대 학생회 회장 홍윤우(경영11)와 부회장 안성우(경영11)의 임기가 끝나고, 3대 학생회장 선출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3대 경영대학 학생회는 '조금씩, 천천히, 당신께'라는 슬로건의 '더 가까이'가 되었다. '더 가까이'의 공약으로는 구급함과 비상약 비치, 금연구역 확립 및 흡연구역 지정, 경영대학 앨범 제작, '경영 장터'를 통한 교재에 대한 부담 해결 등의 유익한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더 가까이'의 정 입후보자 김학수(경영12)와 부 입후보자 김소희(경영12)는 앞으로의 각오에서 제3대 학생회 회장, 부회장으로서 경영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 입후보자 : 김 학수
1993년 5월 22일 출생 / MATE 7기 기획부장

- 전직업 제작
- 구급함과 비상약 비치
- 후원회 후원비닐포장기 설치
- 여자 휴게실 상태 개선 및 관리 제도 도입
- 금연구역 확립 및 흡연구역 지정
- 경영대학 앨범 제작

조금씩, 천천히, 당신께

더 가까이

제 3대 경영대학 학생회

부 입후보자 : 김 소희
1992년 10월 4일 출생 / MATE 7기 총무부장

- '소희의 날' 지정
- 시험 성적의 생분화한 점수 공개
- '경영 장터'를 열어 교재에 대한 부담 해결
- 교수님과의 교류를 확대
- 각종 경영대학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
- 경영대학 홈페이지 개선
- 경영대학 뱃지 제작

경영대학 교환학생 설명회

11월 27일, 부산대학교 법학관 대회의실에서 경영대학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환학생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외국 대학과의 연계에 관심을 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설명회는 Global Entrepreneurship 강의에 뒤이어 진행되었다. 교환학생 선발에 필요한 학점 기준, 어학 능력 등 전반적인 조건과 교환학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에 대해 학생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

PNUBIZ 경영사례연구 경진대회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국제화된 글로벌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 함양을 위해 경영대학 주최로 PNUBIZ 경영사례연구 경진대회가 이루어졌다. 경영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진대회의 주 내용은 Harvard Business case의 연구 및 분석 발표였다. 2012년 11월 30일 진행된 본선에서 대상 1팀은 외국 기업 탐방 지원 비용 400만 원, 우수상 2팀은 상금 50만 원, 장려상 3팀은 상금 30만 원을 수상하였다. PNUBIZ 경진대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학업에 도움을 주며,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북돋아 주는 행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라식 라섹 장학생 선발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교정 수술의 높은 비용 때문에 쉽사리 수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SKY 하늘 안과 의원과 라식/라섹 할인 제휴를 맺었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명을 선발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선발된 양재원(경영10) 학생은 수술 후 12시간 만에 안경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교정되어 편리하다는 말과 함께 경영대학 학생들이 이런 유용한 혜택을 누릴 기회가 생겨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영대학 CCTV 설치

경영대학 과제도서실과 학생회실의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었다.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10월 23일~25일, 3일간 진행한 'CCTV 설치 관련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85%(109명)가 찬성함에 따라 CCTV 설치가 확정되었다. CCTV는 과제도서실 4대, 학생회실 1대로 설치되었으며 설치비 2,300,000원은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캠코 CEO 산학 멘토링

2012년 11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사장과 인사담당 임원들이 경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관 306세미나실에서 산학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경영대 학생회장, 금융분야 동아리회장들을 비롯한 재학생 20명이 참여하여 금융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14년 부산 이전을 앞두고 있는 캠코가 지역인재 선발에 관심을 보인 행사로 그 의미가 컸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12월 1일, 경영대학(원)과 부산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금정구 관내 저소득 노인과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취지 아래, 총 1만 포기 의 김장 담그기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교수, 직원, 적십자 봉사원 등 300여 명이 교내 본관 앞 광장으로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장은 계속되었고,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는 정성껏 포장되어 금정구 내 4,000세대에게 전달되었다. 이번 행사는 (재)월석문화재단, 패션그룹 형지(주), (주)금호, 원광 종합건설(주), 두산인프라코어:부산법인, 하나인 치과병원과 부산대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MBA, AMP 동문가족이 후원한 6,000만 원으로 준비되었다.



동래여고 학과탐방

12월 7일, 상학관 A207호에서 동래여고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과탐방이 진행되었다. 참석한 학생들은 경영대학과 학과 소개 및 진로방향에 대해 김종관 교무부학장 겸 학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동래여고 학생들은 '학과를 미리 탐방해 봄으로써 학과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같은 학과탐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성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방학 동안 학생들의 현장 업무 경험을 강화를 위해 경영대학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4주, 8주로 나누어진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학점과 실습비를 지원해 주었다. 현장실습참가기업은 총 11곳으로, 이중 벅스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에어부산의 5개 기업은 2012년 겨울 계절학기 기간 경영대학에서 직접 발굴한 기업체이다. 현장실습희망자 81명 중 31명이 기업에 파견되었다. 실제 기업과 연계된 현장실습제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길러주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부 및 일반대학원 전기 학위 수여식

2월 22일,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서 학부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상과대학 경영학부에서는 경영학 전공 106명, 회계학전공 59명, 금융공학전공 25명 총 190명의 학생이 수료장을 받았다. 대표로 회계학전공 박은혜 학생이 증서를 수여받았다.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서는 박사과정 학위 8명, 수료 9명, 그리고 석사과정 학위 25명, 수료 28명에게 증서가 수여되었다. 계약학과 부동산학전공은 석사과정 학위 6명, 수료 11명에게 증서가 수여되었다.

2013년 신입생 예비대학 행사

2013년 2월 25일~27일, 2박 3일 간 경주 블루원 리조트에서 2013년도 신입생 예비대학이 3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주요 행사 일정으로 1일차에는 명사 초청 특별 강연(성도회계법인 박철병 대표)과 경영대학 교수들의 교수진 소개 및 격려의 시간이 있었으며, 2일차에는 교수 특강과 포스코 현장 견학 그리고 학생들의 자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3일차에는 전체 모임을 가진 후 귀교하였다. 이번 예비대학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및 학과 적응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주제의 여러 특강과 선·후배 대면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년도보다 더욱 유익한 행사가 되었다.



경영대학 교수 워크숍 개최

2월 25~26일 양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영대학 교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영대학 최종열 학장을 포함한 16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BK-WCU 후속사업 보고, AACSB 진행사항 보고, 경영대학 LINC사업 참여 실적보고, LINC사업 참여교수 업적평가 수정안 논의, 전임교원 신규채용 학과 세부심사표 검토, 2013년 기성회계 예산, 상학관 리모델링 추진, 2013년 주요업무보고 및 핵심 사항 설명,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전공별 향후 발전비전 및 종합토론, 그리고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 및 토의로 이루어졌다. 교수 워크숍과 더불어 2013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에 참석하여 교수님 소개 및 격려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균봉 교수, 장활식 교수, 최종서 교수는 신입생들에게 유익한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STUDENT AWARDS



학생 수상

SMP 투자분석대회 대상 및 3등상 수상



8월 30일, 부산 누리 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된 '2012 부증권 투자분석대회'에서 부산대 동아리 SMP (Stock Masters of PNU)가 대상과 3등을 수상하였다. (부증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증권투자동아리 대학생 연합)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금융 중심지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미래 금융 인력육성 사업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SMP 소속 구성진(경제 07), 김종영(수학 09), 류호준(경영 10), 엄선영(수학 10)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연성인쇄회로 전문 제조업체인 BH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표로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력과 투자 포인트의 논리성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여현일(국어교육 07), 김지영(수학 09), 김수영(수학 09), 박재민(경영 08), 김해수(무역 08) 학생의 팀은 울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동도시가스를 분석해 3등에 입상하였다.



INTERNATIONAL

국제 관련



MBA 큐슈대학 교류 세미나 워크샵

9월 22일, 부산대학교 상학관에서 MBA 원우회가 주최한 일본 큐슈대학 비즈니스 스쿨(QBS)과의 학술교류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최종열 경영대학원장과 엄철준 경영대학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부산대 MBA 원우 25명과 QBS 원우 29명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경제상황과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모델'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총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별로 비즈니스 수익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이 가장 뛰어난 모델이 선정되었다. 이후 각 대학 원우들은 엄철준 경영대학원 부원장의 주재로 저녁 만찬을 함께 하며 더욱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간 교류를 이룰 수 있었다. 각 학교의 원우들이 학술적 교류를 뛰어넘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글로벌 특강

1. 9월 11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제 ○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 성공은 식지 않는 열정에서 시작한다.	2. 9월 18일 패션그룹 형지 회장 최병오 ○ 꿈을 향한 도전 그리고 희망 ○ 지속 성장의 힘 : 소통, 감성, 나눔의 리더십
3. 9월 25일 금융감독원 원장 권혁세 ○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와 향후 감독 정책 방향 ○ 한국 경제 미래의 리스크 요인 진단과 대응	4. 10월 9일 에어부산(주) 대표이사 김수천 ○ LCC(Low Cost Carrier)의 현재와 미래 ○ 아시아 최초의 중장거리 항공사를 통한 안전성, 편의성,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 만족 극대화
5. 10월 23일 MBA 총동창회 (전)회장 손인 ○ 부산대 경영대학원의 미래와 비전 ○ 자기개발, 끊임없는 열정을 통한 도전	6. 10월 30일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김세연 ○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 개학방안 : 경제력 집중 완화 및 경제력 분배 방지
7. 11월 6일 통영시티투어 대표 박정욱 ○ 이순신 그는 누구인가? ○ 글로벌 관점에서의 이순신 ○ 글로벌 시대의 이순신의 리더십	8. 11월 13일 사라토가(주) 회장 도용복 ○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 '살아있으라, 사랑하라' ○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 이루어진다.
9. 11월 20일 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 조경태 ○ 인생의 목표를 크게 잡아라. ○ 뚝(션)한 마음으로 도전하라.	

부산대학교 MBA 원우회는 여러 분야의 뛰어난 명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음으로써 학생들의 지식 함양에 도움을 주는 글로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오 회장,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 에어부산(주) 김수천 대표이사, MBA 총동창회 손인 (전)회장, 김세연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통영시티투어 박정욱 대표, 사라토가(주) 도용복 회장, 조경태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과 같은 명사들을 초청하여 삶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멋진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멘토링 제도



부산대학교 MBA 원우회에서는 신입생들의 원활한 학업 정진과 학교생활을 위해 선후배 간 연계 시스템인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42기 MBA 원우회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더욱 체계화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보완하여 MBA 원우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멘토링 제도는 학사지원부 소관으로 이루어졌다.

자연보호 등반대회



부산대학교 MBA 원우회
2012년 부산대학교 MBA 자연보호 등산대회

10월 20일, MBA 원우회 조직네트워크 부의 주관으로 자연보호 등반대회가 진행되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엄철준 부원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MBA 원우들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출발하여 금정산 남문까지 산행하며 자연보호 활동을 펼침으로써 부산대학교 MBA의 대외활동을 알릴 수 있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MBA 계약학과 졸업식

MBA 계약학과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2013. 2. 28 (목), 11:00에 효원산학협동관에서 진행하였다. 삼성테크노MBA 전공 24명, Techno-MBA전공 8명에게 석사학위가 수여되었다. 최우수졸업생에는 삼성테크노MBA전공 정미영과 Techno-MBA 전공 유시건 학생이 선정되었다.



Graduation Ceremony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입학식



9월 5일, 상남국제회관에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제 62기의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제 62기의 조영환 회장과 더불어 이번 학기 입학생은 25명으로, 입학식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새로운 학문의 배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AMP 워크숍 및 산업시찰

9월 7일~8일 양일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경주 현대호텔로 이어지는 부산대학교 AMP의 워크숍 및 산업시찰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학기 시작에 앞서 학생들 간 친목과 산업 현황에 관한 이해를 도우며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AMP 부부합동강의

11월 8일,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제62기 부부 합동강의가 개최되었다. 강연자는 가정문화원 김영숙 원장과 배우자인 두상달 이사장으로,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행사는 질 높은 강연을 통한 성숙과 더불어 부부 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한 단계 넓힐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AMP 학위 수여식

2월 20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제 62기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하창식 부총장의 참석 하에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제 62기 조영환 회장을 포함한 총 23명의 학생이 수료증을 받았다.



국내 저명인사 초청 특강



12월 1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AMP 종강을 기념하여 국내 저명인사 초청 특강이 있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62기생 및 배우자가 함께 참석한 부부동반 강연으로, 특강은 이미도 작가가 맡았다. 강연 이후, 참석자 간에 만찬을 통하여 담소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행사가 진행되었다.



상대동문회 제2차 확대 이사회

12월 13일, 상대동문회 제2차 확대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온천장 해림갈비에서 이루어진 이번 이사회에는 총 33명의 임원 및 교수와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부산대학교 상대동문회의 발전 및 상대 후배들의 지원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동문 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번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차기 회장 선출이었으며, 김보두 현 회장이 1년간 연임한 후, 수석부회장 전석현(74학번) 동문이 2014년에 회장으로 취임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COLU- MNN

칼럼



28

PROFESSOR'S COLUMN

교수 칼럼

32

ALUMNI'S COLUMN

동문 칼럼

36

CELEBRITY'S COLUMN

명사 칼럼

40

STUDENT'S COLUMN

학생 칼럼

진정성이 요구되는 시대



서문식 교수
경영대학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익숙한 광경이 있다.

백화점 개점과 폐점시간이면 전 종업원이 도열하여 “어서 오십시오.”와 “안녕히 가십시오.”를 외친다. 한 매장을 방문할라치면 종업원이 달려 나와,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네, 고객님”……. 모두들 “고객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다. 이러한 멘트가 사용되고 상냥한 응대가 있었다고 해서 과연 고객들이 왕으로 대접받았다고 느낄까?

연로한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다. 매달 서울에 있는 아들이 생활비로 몇십 만원 보내드린다. 그리고 명절 때 잠시 찾아뵙고 차가 막힌다는 핑계로 서둘러 고향집을 나선다. 과연 이를 두고 우리는 부모님을 진정 잘 모신다고 할 수 있을까? “지네들도 살기 바쁘데 먼 길을 힘들게 온 것만으로도 기특하지…” 혹시 부모님들은 이렇게 스스로 위안 삼진 않으실까?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고객이나 부모님을 진정 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Gilmore 와 Pines에 따르면 요즘 소비자들은 점점 더 진짜와 가짜의 관점에서 기업과 상품을 평가한다고 한다. 즉 ‘진정성’이 있고 없음을 토대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디즈니랜드의 여러 가지 테마파크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그것들이 ‘artificial’ 하지 않고 ‘natural’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artificial’에 더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경우를 보자. 우리가 몇백 원에 불과한 원두가격의 커피를 수천 원씩 지불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독특한 경험의 진정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매장분위기나 커피를 만드는 장면의 연출 등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스타벅스의 노력이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여러 브랜드 간의 품질이 서로 엇비슷한 상황인 요즘, 소비자들은 ‘가식적인’ 마케팅활동보다 그 브랜드와 기업이 보여주는 진정성을 그들의 제품 선택에 있어 더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진정성 없이 고객을 응대하고 형식적인 효도의 흉내를 내고난 후, 고객이 떠나가고 부모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울부짖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음은 다시 기회를 잡기가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가 말했듯이 해외에 나가봐야 애국자가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비로소 효자가 되는 것이 인생일 지도 모른다.



부산대 경영대학이 21세기에 걸맞은 또 다른 단계의 도약을 위해 새로 출범한지도 일추 몇 년이 되어간다. 세계화시대에 맞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leading business school 이 되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말이다.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안팎으로 경주되고 있고, 경영대학의 발전의 외침과 결의가 금정골을 가득 메우고 있는 듯하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부모님과 같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는 않는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대학발전을 향한 함성과 몸짓에 진정성의 옷이 더 입혀져서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을 때 까지 우리 곁에서 기다려 줄 것이다. 고마운 일이다.

오늘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곽춘종 교수
경영대학

1871년 몬트리올 제너럴 병원에 근무하던 한 청년이 있었다. 후에 그는 유명한 존스 홉킨스 외과대학을 설립하였다. 훗날 대영제국의 의사로서 최고 영예인 상임교수가 되고,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그는 윌리엄 오슬로였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풋내기 의대생이었을 때 우연히 읽게 된 토마스 카알라일의 글 한토막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 당시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매우 고민하고 있었다. 그를 이러한 어둠에서 끌어낸 말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 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오슬로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가 유명하게 된 이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미래는 즉 오늘이다. 여기에 내일이란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현대인의 특징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혹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남에게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변기에 앉아있으면서도 신문을 본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신문을 읽으며 동시에 텔레비전을 본다.

어느 유명한 시간관리 강사가 많은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단 위에는 커다란 항아리와 벽돌만한 돌덩이, 자갈, 모래, 그리고 물이 든 주전자가 있었다. 그는 먼저 항아리에 벽돌만한 돌덩이를 집어 넣었다. 머지않아 그 항아리는 커다란 돌덩이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나서 그 강사는 청중에게 물었다.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청중 중의 여러 사람이 “예, 가득 찼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집어 항아리에 집어넣고 깊숙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다. 주먹만한 돌 사이로 조그만 자갈이 가득 차자 그는 다시 물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청중들은 “글쎄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의 빈틈을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물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청중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는 주전자의 물로 항아리를 채웠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꽉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시간관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항아리에 물이나 모래부터 먼저 넣었더라면 이것들을 모두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먼저 해야 자잘한 다른 일도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시간이 다 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에 휩싸여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잠시라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가 지나도 항상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저 일에 매달려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 때 진정으로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강태길 전무
경영75
LG전자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구절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생전 스탠포드대학 졸업식에 초대받아 행한 연설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끊임없이 샘솟는 창의와 통찰,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집념으로 대학을 중퇴한 20대 초반에 애플을 창업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시켜 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경외감을 넘어 전율이 느껴진다.

그런데 당분간 경쟁상대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던 이 회사가 지난해 CEO 잡스의 사망 이후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과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구도로 말미암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목격하게 된다.

1982년 모교를 졸업하고 선택한 첫 직장에서 생활 한지 어느덧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영원한 직업은 있어도 영원한 직장은 없다고 하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행운이다. 1970년대 후반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대학을 다니면서 전공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몰입보다 시국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상과 대학의 경우 졸업연도가 되면 한 사람당 평균 서너 개 회사의 추천서를 가지고 어디를 선택할 것 인가를 저울질할 수 있었으니 요즘처럼 취업준비에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나도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노력과 행운의 결실로 40대 중반에 경영자 그룹인 임원으로 승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돌아보면 좀 더 치열하게 살지 못한 나태함에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학문 간의 영역과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나아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의 힌트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활발해듯이, 기술방면에서도 융합(Convergence)을 통한 발전과 변화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복잡도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에서는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을 바꾸어 가고 있다.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외국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모범생도 조직의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원하는 회사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성취와 역량 못지않게, 조직 내에서 상하동료 간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성의 소유자가 더욱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이 있을 때마다 스티브 잡스처럼 창의, 통찰, 열정, 집념으로 무장된 독종 DNA를 가진 미래의 인재를 찾아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았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는 일이 어려워 시쳇말로 스펙 쌓기에 동분서주한다고 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미래의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과 소양을 축적해 놓는 일이다. 예를 들면 경영학 전공자도 인간의 본성과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 변화의 방향을 꿰뚫어 보고 항상 준비된 인재라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SCM(Supply Chain Management)과 물류(Logistics)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조직책임자는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 자부심을 느끼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잘 연계되도록 동기부여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상시적으로 고민한다. 현재 경영에서 혁신(Innovation)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곧 경쟁구도에서 탈락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맡고 있는 분야는 특히 혁신을 지향하지 않으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고 내외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금년 시무식에서 우리 조직의 Hierarchy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Junior들의 창의력과 Senior들의 경험, 통찰이 결합된 전문가 집단이 열정과 집념으로 혁신을 주도해가면 회사의 성과창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경맥인의 자긍심, 회한, 당부



배수연 부장
경영 86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장

경맥(經脈).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부산대학교 상과대학을 일컫는 별칭이다. 해마다 열리는 조출한 축제를 경맥제라 불렀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전제 재학생과 교직원을 경맥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후배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우리 세대에는 애뜻할 수도 있는 경맥이라는 단어를 빌려 부산대학교 상대 출신으로서의 자긍심, 회한, 당부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동문들과 소통하고 싶다.

경맥인으로서의 자긍심(自矜心)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라성 같은 경맥인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금융계와 재계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대한민국 대표선수격인 대기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에 경맥인이 포진돼 있고 대한민국의 월스트리트인 여의도 금융권에서 최고의 경영 능력을 과시한 멤버도 경맥인이다. 기라성 같은 동문분들이 너무 많아 구체적인 실명 소개는 생략한다. 일일이 거론하기에 너무 많고 혹 빠뜨려 섭섭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맥인으로서의 회한(回還)

그러나 최근 들어 여의도나 대기업에 새롭게 수혈되는 인재 가운데 경맥 후배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상과대학이 없어져 경맥이라는 별칭이 없어진 탓이 아니다. 수도권과 사용자 편의 중심의 인재 충원 방식 등이 근본적인 문제다. 뽑는 사람 입장에선 편하지만, 허울뿐인 스펙 중심의 인재 충원 방식. 보편화된 이런 채용방식이 수도권과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맥인을 금융권과 대기업의 인재 채용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경맥인으로서의 당부(當付)

지방대 출신이라는 게 일종의 낙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화가 나는 일이지만 한탄할 필요도 없다. 경맥인으로서 자긍심의 표본이 되고 있는 선배들도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이다.

■ 우선 후배 동문들은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부분 선배들은 꿈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꿈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지 못한다. 대부분 선배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들이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 세상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이제 세상은 성실성에 바탕을 둔 창의력을 중시할 게 틀림없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험 잘 치는 기계로 자란 아이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인문학, 사회학 등 전공과 관련 없는 부문까지 많은 책을 읽고 많이 고민해 창의력을 길러라. 성실성까지 뒷받침된다면 틀림없이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인재로 거듭날 것이다.

■ 다음은 교수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다. 교수님들도 좀 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새 시대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좀 더 자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나 학회에 패널 등으로 참석하셔서 실력을 과시해 주셨으면 한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너무 적은 탓에 우리 대학이 수도권에서 점점 잊혀 가는 것 같다. 다음으로 곧 부산으로 내려올 금융공기업과 적극 소통하셔야 한다. 이미 부산에 거점을 잡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물론 곧 한국의 패니매이나 프레디맥이 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도 부산에 등지를 틀 예정이다.

거래소에는 파생상품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에게 겸임 교수직을 수여하는 등 문호를 개방해 후배들이 실용 학문을 접할 기회를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는 곧 국채 시장을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할 게 틀림없다. 이 분야에서 부산대학이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고민하는 등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금융공기업과 적극적인 상생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학교 당국은 지방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서울 캠퍼스를 열어, 1년 정도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자. 서울 캠퍼스는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차원의 제안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계와 금융시장의 흐름은 물론 기라성 같은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전초기지, 그게 바로 서울 캠퍼스의 역할이 될 것이다. 다른 대학들이 세종캠퍼스, 인천 캠퍼스 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추신. 제가 몸담고 있는 연합인포맥스는 국내 유일의 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자회사입니다. 각종 경제, 금융 관련 뉴스를 생산하는 금융전문 미디어로 한국판 블룸버그나 로이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하루 거래량 20조 원인 채권시장과 10조 원인 외환시장에서 매니저, 딜러, 트레이더, 브로커 등을 상대로 특화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기본은 안전문화 정착에서 시작된다



이동성 본부장
경영 76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우리는 매년 이날을 기하여 화재예방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순직 소방인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소방영웅을 기념하고 과거 화재로부터 교훈을 되새겨 각성하고자 국가적 차원으로 소방기념일을 정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절강성 금화지구에 민간이 주도하는 소방절 행사가 음력 5월 20일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5월 25일 혹은 8월 1일에 거행되었으나 1992년 중국 정부에서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119소방선전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일본은 서기 747년에 건립된 세계 최초의 초대형 목조건물 “법륜사”가 1949년 1월 26일 화재로 인하여 일본 국보와 함께 소실된 날을 교훈으로 삼고자 1월 26일을 “문물방화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또한, 독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국가에서도 역사적인 교훈을 기억하고자 5월 4일을 국가적인 소방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각국의 소방 기념일은 어떤 날을 단순히 정한 것이 아니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고, 과거 화재로 인한 뼈저린 아픔을 기억함으로써 혹은 화재가 빈발하는 시기에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각 국가마다 역사와 전통, 문화가 만들어 낸 “기념일”이라 할 것이다.

소방기념일에 각 국가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것과 같이 한 국가의 국민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것은 각 국가마다의 안전문화 수준이 어떠한가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국가 최대의 목표로 모든 국력을 집중한 결과 50여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였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발전하리라는 것이 전 세계의 인식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사전예방이 사후수습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과는 달리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어 안전사고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져 선진국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인천 호프집 화재, 승례문 화재, 고시원 화재, 불산누출 사고 등 어처구니없는 재난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형재난들이 우리나라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문화를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안전불감증의 팽배와 사고를 운명 시 하거나 최소한의 불상사로 여기는 사람이 많고 일부 지식층조차 재난을 경제발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가피한 희생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큰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처음 며칠간 떠들썩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듯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도시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담보 받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도 늘고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난발생에 대비한 예방시설에 투입한 초기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사전예방의 경제적 효과는 투입비용의 최대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측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2004년 6월 1일 정부 역사상 최초로 국가재난관리를 총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출범시켜 안전문화 고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WTO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제주도, 서울 송파구, 원주시, 천안시 등 5개 자치단체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우리 고장 부산에서도 광역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2014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소방 관련학과와 개설로 확인할 수 있는데 소방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교) 현황을 보면 2007년 49개 대학(교)에서 2011년 91개 대학(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연도	계	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소계	대학교	대학	소계	대학교	대학
2007	49	39	12	27	10	1	9
2011	91	56	35	27	35	20	15

이상과 같은 2000년 이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학계의 몇 가지 변화는 분명히 우리 사회가 안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낭비가 아니라 그 여느 투자보다 생산적인 투자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낮은 수준의 안전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 구성원에게 공유된 가치관, 사고방식, 습관 등 생활양식의 총체라 할 수 있는 문화는 정부나 자치단체, 학계 등의 노력이나 관심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개개인의 행동양식으로 표출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나 학계에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싸움을 키워다면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은 국민의 몫이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의 몫이 무겁고 어렵게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비상구 확인하기, 소화기 사용법 익히기, 교통신호 지키기,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하기, 응급처치법 익히기 등 주변의 조그만 규칙과 상식을 준수하고 실천하고, 직장에서 안전장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비상구 확보,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등 조그만 실천을 지속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활 속 자그마한 실천, 그것이 안전한 삶을 앞당기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주변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효원 경영인은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가장이며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리더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가정과 직장의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함을 명심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안전 투자! 조용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효원 경영인은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베네룩스 3국에 걸친 17박 18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뮌헨으로 돌아가는 야간열차에서 이 글을 씁니다. 뮌헨에서의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에게 저의 솔직한 감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환학생 지원 기간. 한 학기라는 짧은 기간동안 드라마틱한 영어의 발전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나는 최종적으로 노르웨이 NTNU와 뮌헨 MUAS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우리 학교에서 처음 협정을 맺은 곳이라 내 주변의 누구도 가지 않았던 독일을 택했다. 그 당시에 내가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완벽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더듬어보자면 ‘여행’, ‘경험’ 또는 ‘처음’과 같은 단어들에 매료되지 않았나 싶다.

뮌헨에서 산다는 것은 조금 특별하다. 전해린의 저 유명한 글을 아직 읽지 않았어도, 바이에른 뮌헨의 팬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전혀 모르더라도 누구든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인 옥토버페스트를 반 년간 준비해 한 달 내내 즐기고, 곧바로 또 유럽 최고 수준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도시 곳곳을 물들인다. 흠날리는 비가 ‘필연적으로’ 내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우산 없이 길을 분주히 걷는다. 내 키보다 클 것 같은 덩치의 개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뛰어 다니고, 멋진 옷을 걸치고 당당히 지하철을 탄다. 해가 뜬 주말이면 잉글리쉬가든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아저씨들을 눈가리지 않고 대놓고 쳐다볼 수 있고, 축구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온통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만원 지하철에서 들리는 팬들의 괴성을 들을 수 있다. 열 종류가 넘는 뮌헨 전통의 맥주를 천원 남짓한 돈에 사서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곳, 소금을 묻힌 빵인 브레첸과 소시지가 주식인 곳, 이 곳에서의 삶은 안정적이고 재밌다.

그런데도 이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뮌헨이 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해있다는 사실이지 않을까. 사실 지도를 펼쳐보면 유럽의 정중앙은 폴란드나 체코의 소도시 어디쯤

되겠지만, 동/서/남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허브로서 뮌헨은 명실상부한 유럽의 중심이다. 뮌헨 근교의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이라는 마을에 가면 독일 알프스의 최고봉인 츠크슈피체라는 산에 오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서로 스위스, 남으로 이탈리아, 동으로 오스트리아를 한번에 볼 수 있기도 하다. 때문에 여행자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나는 이 특별함 속에서 무척이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3개월 간의 뮌헨 생활 동안 님펜부르크, 다카우 수용소, BMW박물관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미술관인 피나코텍 시리즈를 주말마다 다녀올 수 있었고, 주말이면 가까운 체코의 프라하나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같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었다. 옥토버페스트에서 술취한 독일인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한 손에 커다란 맥주잔을 들고 ‘프로스트!’를 외치며 웃고 떠든 기억, 내년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고 싶어하는 독일인 친구의 집에서 정통 독일 음식과 독일 문화를 체험한 것도 이곳에서 얻은 큰 행복이다. 유럽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독일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오고 싶어 한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추천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 이유, 다시 말해 이러한 많은 이점들을 차치하게 만드는 것은 독일이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영어를 많이 쓰지 못한다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독일어를 쓰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은 독일어 표지판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독일어로 식당에서 주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독일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영어만 공부하기에도 6개월은 아주 짧은 기간이다. 영어권으로 교환학생을 갔더라면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더욱 미묘한 부분인데, 내가 독일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잡아야 할 토끼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영어를 위해 교환학생을 왔으니 영어도 많이 써야 겠고, 독일에 마침 왔으니 독일에 다녀온 행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겠는데, 이 좋은 곳에 와서 공부만 하느라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순 없으니 여행을 다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달리 하며 마음을 어지럽힌다. 결국 너무 많은 선택지를 두고 고민만 하느라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될 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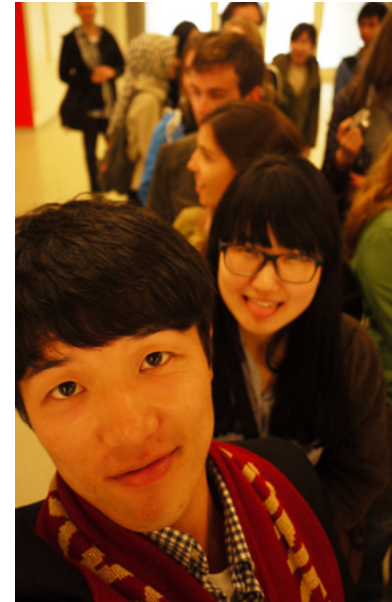


사실 교환학생의 목표가 영어와 문화체험이라면 영어권을 가는 것이 맞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좋은 단어가 모든 이들의 머릿 속에 들어있지만, 마음에는 쉽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유럽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여행의 유혹을 쉽사리 떨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체험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원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무엇이든지 많이 보고 배운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낀 적이 많이 없을 것이다. 사실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개념이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의 3개월 남짓한 생활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느낀 것들을 완전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부족함이다.

낮선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낯설게 보게 해주는 원동력을 준다. 특히나 위대한 문화 유산이 넘쳐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에서 '낯설게 보기'의 힘은 아주 크다.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그리 대단치 않은 나라라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딱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고, 나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수한 사람들이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고 해야 하는 일도 생겨난다. 외면적인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자기의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작은 추동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씩씩하게 미래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똑부러지는 친구들만 교환학생이 되려고 했던게 벌써 몇 년 전이다. 그 때 나는 군대에서 교환학생을 할까 말까,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될까, 4학년 1학기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아닐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영어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아



니었고, 영어를 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영어를 굳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교환학생을 선택했다.

그 이유를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나는 내 친구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어학연수, 자격증 준비, 국가고시를 공부하던 그들과 다르고자 하는 일종의 반항적인 감성으로 교환학생을 택했었다. 외고에 진학하게 되면 우쭐대며 엘리트 마인드를 갖게 될까봐 주저없이 일반고를 택했던 중학교 시절의 치기 어린 이유 그대로였다. 물론 어학연수를 떠나거나 국가고시를 공부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택한 것 뿐이다. 독일로의 교환학생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겪지 못한 나만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교환학생을 택한 나같은 사람도 아주 큰 인생의 자산을 얻고 있을진대, 깊은 고민 끝에 큰 사람이 되어 보겠다는 사람에게 얼마나 값진 경험이 될 지 자못 궁금하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어쩌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남들이 다하고 있는 교환학생을 굳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이너리티형 인간, 너도나도 외국에 나가는 것이 꼴보기 싫은 그런 누군가에게 나는 다시 한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교환학생을 떠나라고 말하고 싶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토익을 준비하는 1,2학년 후배들, 여름에 필리핀으로 영어 연수나 떠나볼까 고민하는 친구들, 나이가 많은데 늦게 대학을 와서 얼른 졸업해서 취직해야겠다는 장수생들에게도, 그저 인생에서 다시 할 수 없는 단 한번의 기회를 움켜쥐라고 말하고 싶다. 인생을 변화시킬 내면 깊은 곳에서의 외침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다. 이런 글을 본다고 해서 어떤 경험을 가져다 주는지 느낄 수 없다. 뒤도 돌아 보지 말고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보는 것이다.



유학생 참 좋다

비 링샤오
경영 11



시간은 바람이 지천을 스쳐 지나듯, 붙잡을 새 없이 날아간다. 어느새 내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느꼈던 설레는 마음과 부산대 지하 철역에서 보았던 활기 넘치는 학교 앞 거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떠나 앞으로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우물 안 개구리의 생활을 벗어나 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1학번 비 링샤오(필능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학 입학 후, 첫 MT에서 동기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 하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서먹했지만 술잔을 부딪치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점점 한국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그 덕에 한국의 술 마시는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특히, 내가 들었던 경영학과 농구동아리인 ACE에서 술 문화에 대한 이해는 동아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ACE 모임이 있을 때마다 농구장에서 선후배가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며 재미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동아리 사람들은 외국인인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해주고,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술 문화와 동아리 활동, 두 가지 감초는 나의 한국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었다.

한국어 공부도 유학생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유학 오기 전, 한국어를 약 4개월간 배웠으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준은 아니었다. 유학 초기에 나의 한국어 실력은 유치원생과 같았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싶은 마음에 부산대 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좀 더 심화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어는 내게 어려운 언어였지만, 언어교육원의 선생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밖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웠고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눈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호랑이 굴

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일단 부딪쳐보자는 굳은 결심을 한 뒤, 한국어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 알바를 시작하였다. 알바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상대하는 일이 잦아질수록 한국어에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외국에서 내 손으로 용돈을 버는 뿌듯함도 느끼면서 일석이조라는 사자성어를 체감할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국제언어교육원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언어교육원에서 유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 중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체험장에 데리고 다니시며 직접 한국 문화를 겪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흥미를 가진 나와 다른 유학생 친구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별도로 우리만의 부산문화체험 팀을 결성하기도 했다. 우리 문화체험 팀은 부산의 동백섬, 광안대교, 남포동 등 유명한 관광지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했다. 언어교육원에서 만난 경영학과 동기 중에는 중국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도 많았기 때문에 타국의 친구들이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견문을 넓히기도 했다. 이러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외국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서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나눌 수 있었다. 국제언어교육원과 함께한 시간은 내 유학생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며, 언제 떠올려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예쁜 추억으로 남았다.

지금도 대학에서 첫 강의를 들었을 때를 떠올리면, 그 때의 긴장감과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생각난다. 그런 나에게 많은 친구들이 친절히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공부를 도와주었다. 지금은 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술을 한잔하기도 하며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되었다. 먼저 다가와 준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다.

집은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고 가족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구에게든지 집은 쉼터이고, 보호막이다. 그러나 나는 미래를 위해 스스로의 의지로 집을 떠나왔다. 나 자신을 위해 독립심을 기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힘든 길이 될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서둘러 지나갔고, 지금 내 곁에는 기운을 북돋아 주고 힘이 되어 주는, 가족 같은 친구들이 존재한다. 덕분에 나의 유학생 생활은 힘겨움 보다는 즐거움과 보람으로 가득 찼다. 지난 3년의 시간동안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더불어 나의 내적인 성장도 크게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얻은 성숙함과 자신감은 앞으로 내가 어떤 힘든 일에 부딪히더라도 그 위기에 맞설 용기를 줄 것이다.

나는 유학생 생활이 참 좋다^^

한국은행 취업후기



이소정
금융 08

따뜻한 부산이 그리운 한국은행 13행번 이소정 조사역입니다. 입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아직은 행번보다 학번이 익숙한데, 이렇게 후배들과 동문 선배님들이 보시는 소식지에 취업 후기를 쓰게 되어 신기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한국은행에 지원하려는 후배들을 위해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에 소위 SKY 대학만이 입행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능력이 뛰어난데도 자신감이 부족해 한국은행에 지원조차 못 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이전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부산대의 위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서류전형에서 20배수, 필기전형에서 1.5배수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대학은 서류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일 뿐, 가장 중요한 필기시험 전형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결과를 얻을 기회입니다.

둘째,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십시오.

취업준비생의 처지에서 많은 서적과 경제보고서 및 각종 논술 주제 등을 공부하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경제신문은 많은 자료를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정보만을 선정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워주므로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칠 수 있게 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에는 한 시간 정도를 들여서 모든 기사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맨 뒷부분의 사설은 꼭 읽어야 하고 자기 생각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설은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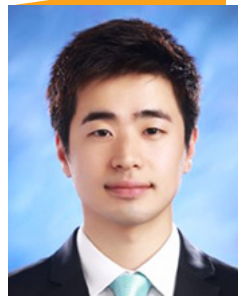
셋째, 선배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취업하신 선배님들도 취업준비생의 시기를 모두 겪은 분들입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왔던 만큼, 선배들도 그 시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으로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후배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선배들은 후배가 원하는 분야의 실무자로서 가지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졸업을 앞둔 선배로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sjlee@bok.or.kr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지원하실 분들께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장을 유혹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나의 열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같이 일하고 싶게끔 하여야 합니다. 저 또한 낮은 학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필기시험 공부를 하고 면접 스테디를 하는 등, 그 외에도 열거하지 않은 많은 활동으로 설 틈 없는 20대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은행을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급여는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못 미치며 야근이 많고 업무 강도도 높습니다. 후배들이 한국은행을 지원하는 유일한 이유가 '신의 직장'이라는 타이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직에 앞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이 도움 되기를 바라며, 후배님들 Fighting! :)

공인회계사 합격 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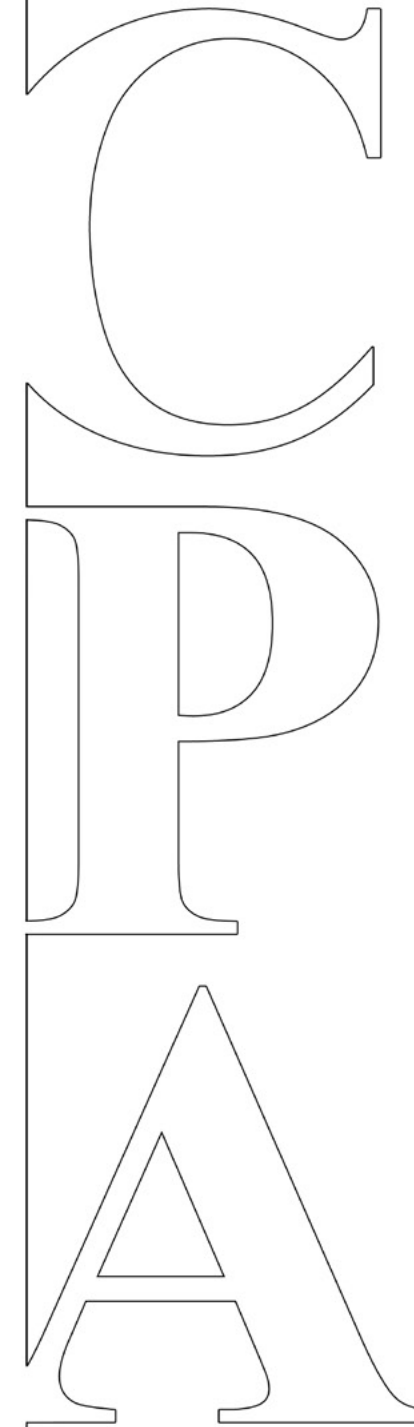


정지훈
회계 07

안녕하세요. 저는 제47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동차 합격한 회계학과 07학번 정지훈입니다. 우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대표하여 글을 쓰게 되어 쑥스러운 한편 영광스럽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다양하기에 '합격 수기'란 타이틀로 저만의 학습방법을 나열하기보다는, 998명의 합격자 중 한 명으로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의 느낀 점과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격적인 시험 준비부터 2차 시험의 마지막 과목인 재무회계가 끝날 때까지 길고도 짧은 1년 10개월이라는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 CPA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CPA는 제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고민하던 여러 진로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전역 후 최종서 교수님의 중급회계를 수강하면서 회계 과목에 흥미가 생겼고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인터넷 강의도 수강하였습니다. 그렇게 학과 공부와 인터넷 강의를 병행하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회계 직무가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CPA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주위의 많은 선배들에게 자문하며 고민하던 끝에 저는 CPA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전공자였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점을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었고, 4개월간 상대 고시반인 경맥 정사에 입사하여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단기간이었지만 4개월간 몸담았던 경맥 정사는 제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부해본 선배들께 수험 생활에 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안정된 환경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룹 스터디는 제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하였고, 함께 CPA를 준비하는 팀원들과 고충을 나누던 시간은 외롭고 지쳐있던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험 기간을 겪으면서 좌절의 순간 또한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바로 엄청난 학습량과 지식의 휘발성이었습니다. 상경계열 최고의 자격시험답게 경영, 경제, 회계 분야의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학습량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고, 막막함에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본 내용을 하얗게 잊어버린 저 자신을 발견할 때면, 애꿎은 제 머리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 또한 저의 수험 기간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이 있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선 혼자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고 저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로 못할 만큼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학업에 충실해지려 했던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CPA에 관심이 없으셨거나 응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998명의 47회 합격생 중 부산대학교에서 배출한 합격자는 19명입니다. 국립대 순위로 보면 4위로 낮은 순위는 아니지만, 합격자 수는 경영대학의 명성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대학 학생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합격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많은 수가 응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CPA에 대한 모교의 지원은 타교에 비해 부족한 편이지만, 최종 합격 시 남은 학기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시반 입반시 온라인강의 수강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CPA 1차 합격 시 경영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PA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수험 기간에 도움을 받을 방법은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붙는 만만한 시험은 아니지만, 전문가로서 사는 삶에 대한 꿈이 있다면 노력의 자세로 굳게 마음먹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월 말 1차 시험, 혹은 6월 말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인내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긴장감과 불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열심히 노력했던 지난 수많은 시간, 결코 헛되지 않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더 힘을 내서 모두가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합격자 명단을 보고 환호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저는 아직 제가 합격한 사실이 얼떨떨합니다. 그러나 합격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기에 전 지금도 저의 장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 되어 세계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엄청난 사명감으로 회계사시험에 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회계사의 업무범위가 매우 상당한데다 아직 실무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비전도 그리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9월 회계 법인에 입사하면 2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치열히 고민해 보려 합니다.

"Boy's be ambitious" 제 독서실 책상에 붙어있던 글귀입니다. 공부는 절대 누군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망을 가지세요. 엄청난 동기부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하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MBA가 주는 선물



지대연
경영원 11

어느새 졸업이 한 학기 남았다. 직장생활을 하며 대학원을 다녀야겠다고 결정한 것이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입학 면접을 치를 때, 나이가 많아 걱정하던 내게 ‘늦은 나이에 공부하겠다는 그 열정이 대단하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격려해주시던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다.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때는 1학년 1학기였으리라. 당시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은 나를 무척이나 지치게 하였다.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열심히 강의를 들었지만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하면 강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 날 배운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나를 보며 좌절했던 기억이 난다. 중간고사 범위가 공지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간 배웠던 것들을 아무리 정리하고 복습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이었으니 말이다. 그런 나의 한계를 깨준 것은 동기들과 함께 한 스터디였다. 그룹 스터디 내에서 강사를 뽑아 주어진 파트를 다른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방식이었다. 동기생들이 강사가 되어 반복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데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질문하고 대답하다 보니 학습능률도 오르고 이해력도 높아졌다. 나는 스터디를 통해 배운 내용을 확실히 복습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니 대학원 생활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지고 기쁨으로 다가왔다. 모두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이기에, 오로지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때문에, 나는 자연스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 존중하는 효원 MBA 안에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배워나갔다. 서로 형님, 동생 하며 챙겨주는 마음, 오고가는 따뜻한 정, 넘치는 인간미는 우리 효원 MBA의 자랑이다. 처음 대학원 생활과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내게, 먼저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선배들과 동기들이 바로 내가 MBA에게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다.

중학교 시절 배웠던 공자의 말씀,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다. 나는 이 곳 효원 MBA에서 배움에 대한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회계학과 재무학 전략, 그리고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으며 기업 경영에 대한 식견이 넓혀짐에 따라, ‘내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구나!’하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과 모든 MBA 학생들에게 더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늦은 나이에도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 배움에 기쁨이 따르니 더욱 감사하다. 이것이 MBA가 내게 주는 두 번째 선물이다.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손익에 대한 개념이 참 부족했다. 특히나는 공과대학 출신으로 모든 문제를 ENGINEERING APPROACH로 접근하려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MBA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에서의 업무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바로 손익 개념이 포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점검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윤창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와 사회 환원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단순한 사회적 환원을 넘어서, 그 책임을 다하는 환원임을 알게 되었다. 환경 보전 뿐 아니라, 기업이 미래의 사회적 환경에 대비하고 함께 이윤을 나누면 또 다시 기업이 생성되고 유지 및 발전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사회적 윤리규범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에 맞는 경영철학을 수립 후,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라는 개념이 잡힌 것이다. 내가 MBA에게 받은 세 번째 선물이다.

경영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의 경제적인 삶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인풋이 더 많도록 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라면 나는 내 삶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MBA에서 얻은 것이다. 배움의 즐거움이 나를 평화롭게 함은 물론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관계와 사회구성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정립하였다. 기업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사회 속에서 책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효원의 MBA는 진정 나의 가장 큰 스승이다.

청년 행복시대를 바라며



조영환
AMP 62기
원우회장

삶이 각박하다. 숨이 차오른다. 노년도 아프고 청년도 힘들다. 오늘날 청년들의 한숨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삶이 고통스러워 소주잔을 기울여 보지만 자고 일어나면 두통만 심할 뿐이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노라고 약속하지만, 청년행복시대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2011년도 OECD가 발표한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또한, 금년 1월 첫날 인터넷과 SNS 등에 올라온 버킷리스트를 보면 과거보다 더 침울하고 각박해졌음을 느끼게 된다. 낭만은 사라지고 취업, 승진, 빚 갚기, 자격증 취득 등 생계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소망이 많이 담겼다고 한다.

영국 BBC에서 행복을 얻는 열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중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과 자신에게 작은 보상이나 선물을 함으로써 현재를 살라는 것,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스트레스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불안과 고민의 시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이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수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을 보면 정말 공감하는 대목이 나온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이 있다.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을 등 뒤에 흘릴 때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럴 때도 난 내 꿈을 믿는다.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의 벽을 넘어 저 하늘을 높이 날 것이다. 내 삶의 끝에서 웃을 그날을 함께 하자”.

DREAM HAPPY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미 현실인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삶을 펼쳐 나가자.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질주할 수 있는 것이 젊음이다. 너무 늦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가면 된다. 원래 길이 없었지만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을 때 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고자 하면 그게 곧 길이요 희망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삶이 찢어지고 고름이 흐르고 굳은살이 박혀 단단해질 때 비로소 온전한 내가 세워진다고 시골의사 박경철은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자. 인생은 마라톤경기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나의 보폭으로 뛰어가자. 꿈이 있는 청년에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EVENT & PARTI- CIPATION



주요 행사 및
학생 참가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인터뷰



김학수
경영 12



김소희
경영 12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경영대학 학생회장 12학번 김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대학 부 학생회장 12학번 김소희입니다.

네~반가워요. 작년 12월 1일, 경영대학(원)과 부산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지?

12월 1일에 있었던 경영대학 김장 담그기 행사는 제가 학생회장이 된 후 첫 행사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교수님을 통해 경영대학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다고, 학생들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취지에서 열리는 자리인 만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경영대학 교수님들, 선배님들을 많이 뵈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에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이후로, 거의 모든 경영대학 동문회 행사에 참여해 왔던 터라 이번 경영가족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도 큰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태껏 참가했던 가족 같은 분위기의 동문회 행사들과는 달리 규모가 상당히 큰 행사여서 색다른 경험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취지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셨군요~ 좋은 취지의 행사인데다 두 분 모두 학생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300여 명의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가서 어떤 일을 했나요?

행사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분이 와서 분주히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나눠주신 위생용 장갑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뒤 본격적인 김장에 돌입했는데 김장 조에서 김치를 주면 그것을 비닐에 담아 포장하여 상자에 담는 일을 했어요.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했더니 힘든 것도 모른 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갓 담은 김치와 수육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그 맛이 잊히지가 않아요.

맞아요! 다 함께 고생하고 먹어서 그런지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그날 절인 배추에 양념을 치대는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미도 있었어요.

갓 담은 김치와 수육~ 정말 맛있었겠네요!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저는 김장이 마무리되어갈 때쯤 학생회 친구들과 직접 독거노인 할머니댁에 찾아뵙고 김치를 배달해 드린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어요~ 저희가 직접 담은 김치라고 설명해 드리며 혼자 계시는 할머니께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안마도 해드렸는데, 그때 할머니 댁에서의 시간이 참 행복하고 따뜻했어요.

네, 저도 마지막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직접 김치를 전달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도 모두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셨겠네요*^^* 얘기만 전해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행사에 많은 동문 선배님들과 교수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함께 참여한 다른 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건 아니지만, 경영대학을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이런저런 농담도 주고받았고, 김장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대한적십자사 어머님들과 김장을 잘 담그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직 어린 저희를 위해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과 이런 작은 관심이 그분들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함께 방문 배달을 갔던 친구들과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는 오늘처럼 뜻깊은 일을 자주 하자고 약속도 했어요.

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이번 김장 담그기 행사가 두 분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경영가족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았던 행사였어요^^. 또한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평소 잊고 지내왔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진행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겨울임에도 부쩍 추워진 날씨에 행여나 행사가 취소되거나 참가 인원이 적을까 걱정했었는데, 그것이 저의 기우였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와주신 모든 분께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마치 본인 일처럼 성심성의껏 한 포기 한 포기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또한, 매년 동문회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한 일원으로서 이러한 좋은 취지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또 이 같은 행사가 있다면 두 분은 또 참여하실 거죠?

당연하죠~ 다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2013년에도 좋은 행사들 많이 부탁드립니다:-D

기회는 기다리는 것도, 잡는 것도 아니다. 기회는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구민규
금융공학 07
2012 PNU BIZ GLOBAL
CHALLENGE
2012 PNU HAVARD
BUSINESS REVIEW
ANALYSIS 참여

자랑스러운 경영인 여러분! 저는 경영학과 금융공학전공 4학년 구민규 입니다. 2012 PNU BIZ GLOBAL CHALLENGE와 PNU HAVARD BUSINESS REVIEW ANALYSIS 참여 후기와 함께 조금 더 많은 공모전을 경험한 선배로서 후배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금융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두게 된 때는 2007년 부산대학교 최초의 금융 동아리인 SMP(Stock Masters of PNU) 2기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동아리 내 선후배, 동기들과 열정적으로 금융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던 시간들은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공학과를 전공으로 한 후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에 접목해보고자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를 해보기도 하였고, 금융 실무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벗어나 누리사업단, 부증권(부산·울산·경남 증권동아리 연합)을 통해 여러 금융 관계기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금융과 관계된 공모전을 통해 대외적으로 평가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 있는 금융 분야 공모전이나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고 그 도전은 아직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남은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찾던 차에 PNU BIZ GLOBAL CHALLENGE 대회 개최소식을 알게 되었고,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의 자본조달과 증권과 관계된 주제 『Crowd Funding의 국내 활성화 방안과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학 기간에는 HAVARD BUSINESS REVIEW 분석 대회를 위해 중소기업(SME: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의 자본조달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접목한 'IBK 기업은행, 고객들과 Win-Win 할 수 있는 금융기관 경영전략'에 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 채권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IBK기업은행의 특수성과, 개인고객 분야에 취약한 경영상황에 중점을 두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고, HAVARD BUSINESS REVIEW 분석 대회에서 대상

PNUBIZ 경영사례연구 경진대회

-Harvard Business Case를
연구 및 분석하여 발표-



을 받았습니다. 경영대학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굵직한 행사들에 대해 사전에 공고하고 있어, 하반기에 HAVARD BUSINESS REVIEW를 분석하는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참가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문장에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에 착안하여야 합니다. 그 뒤 모든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요약정리하고, 관계된 기관을 접촉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문헌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시 교수님, 지인, 관계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보고서를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인내를 요합니다. 그러나 공모전을 준비하며 그 주제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지식을 쌓을 수 있고 학부생의 수준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Specialist가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제가 후배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공모전에 참가하여 얻는 지식과 경험은 스펙을 위해 맹목적으로 참가하는 공모전에서 얻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좋은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기회비용만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도, 잡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영인 여러분께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내·외 활동 혹은 공모전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면 노력한 만큼 꼭 좋은 성과가 따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박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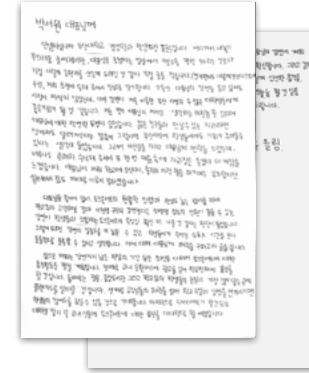
빅엔트 인터내셔널 대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기업인
세계 3대 광고제 3년 연속 수상 / 세계 5대 광고제 그랜드슬램 달성
국내, 국제 광고제 50여 차례 이상 수상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는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명문대학 문학과입니다. 지금도 학생들은 회계사, 마케터, 증권사, CEO 등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기는 이토록 뜨거운데,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배움과 경험에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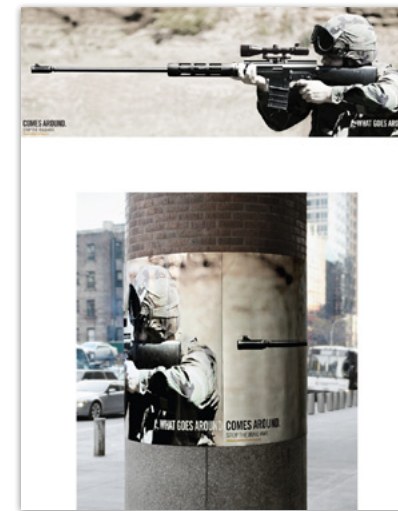
이런 현실에서 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존경하는 크리에이티브인 박서원 대표님의 저서인 '생각하는 미친놈'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대표님은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다! 광고업계를 꿈꾸는 학생들, 더불어 경영학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토록 도움이 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박서원 대표님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괜한 일을 하는 건지, 후회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은 이번 토크 콘서트가 모든 부산대 학생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하리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필 편지를 써서 대표님을 초청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배움에 목마른 학생들을 대표하여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은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표님의 강연을 원하는 저를 비롯한 부산대 학생들의 최대한의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통했는지, 대표님께서는 흔쾌히 토크 콘서트에 응해주셨습니다. 초청 요청에 응하는 소식을 듣고, 학생회 친구들과 환호하며 즐겁게 콘서트 홍보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윤우 학생의 자필 편지



Global coalition for peace.org
Ambient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경맥 토크 콘서트를 위해 스태프를 모집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위해 부산대학교 교지인 '효원' 편집부에 연락하여 발간 책자 광고를 인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대 전역에 플랜카드, 포스터를 통해 타과 학생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했고, SNS 이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토크 콘서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콘서트 당일, 부산대학교 10.16 기념관은 개관 이래 최다 인원이 운집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강연을 듣기 위한 학생들은 맨바닥, 계단, 심지어 무대 위 구석자리까지 환영하며 강연장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산대 학생들의 열정에 가슴 가득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박서원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가슴에 깊에 남은 말이 있습니다. Ask why. Think simple. 어떠한 문제를 직면할 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강연 이후, 저는 무언가 막막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위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답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마다 안개가 걷히듯 최적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생각 방식, 그것이 저의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기수의 학생회, 그리고 그 다음까지 경영대학 학생회가 박서원 대표님과 같은 명사초청을 통해 부산대학교의 명품 경맥 토크 콘서트를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발전기금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적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창출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대학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연구 인프라 혁신과 연구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09년 더 타임스 QS 평가에서 국내 종합대 6위 등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비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혁신과 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영대학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들과 각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경영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 **최 종 열**



발전기금 사용목적

+ 장학기금 _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0.5%)이내의 최우수 인재
-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2%)이내의 우수 인재
- 국제교류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교환학생 지원

+ CPA수험생지원 _공인회계사 배출을 위한 장학금 지원

- CPA 2차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 함
- CPA 1차 합격자에게 포상금 지급
- 방학기간 전국 유명강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
- CPA 준비생의 24시간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정비
- CPA 1차/2차 합격자에 대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 학술연구기금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SSCI 최우수 논문포상 :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 세계적 석학초빙 사업 :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 국제교류기금 _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 외국인교수 확보사업 :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 _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필요
- 경영학교육 기반 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_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 강의시설 확충

- 대학운영개선기금 :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 첨단강의시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재 등 첨단강의시설 확보

경영 발전기금 출연방법

경영 발전기금-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자가 지정하시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출연자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출연하신 분에게 기금 운영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경영 1인 1계좌 갖기운동 ·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출연자가 매월 1만원씩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불입하는 방법입니다.

+ 경영 등록금 한번더내기 기금

등록금을 한번 내어 후배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
출연자가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수혜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경영 특별목적기금

출연자가 경영대학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입니다.
출연자가 기금명칭을 정하고 해당기금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목적성 축적기금은 출연자가 지정한 목적의 기금으로 축적하고,
이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 출연자에게 대한 예우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예우

- 학교홍보물 우송
- 부산대학교병원 할인

+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 출연자명 본관 벽면 각인 보존
- 도서관 이용증(열람, 대출)
- 차량 무상 출입 등록[1대]
- 평생교육원 수강료 30% 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국제언어교육원 수강료 30% 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대학만찬 등 학교행사 초청 [연1회]
- 청남 오제봉 선생 서예 병풍 증정(3000만원 이상)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

+ 금정클럽(1억원 이상) 추가 예우

- 감사패 증정(총장)

+ 문창클럽(5억원 이상) 추가 예우

- 명의 건물명 헌정 또는 흉상, 부조상, 공덕비 건립[4층 택1]

+ 효원클럽(50억원 이상) 추가 예우

- 부산대학교병원 VIP 평생무료진료권 증정

상과대학·경영대학원 발전기금 : 1993년 3월 ~ 2010년 8월 (단위 천원)

금정클럽(1억원 이상)

김종갑	100,000
-----	---------

웅비 클럽(1,000만원 이상)

노대섭	48,000	김종태(대표)	20,000	김승영(㈜금영 대표)	10,000
김일곤(경제학과 교수)	30,000	김태홍(㈜정관 대표)	20,000	조관승(회계사)	10,000
노선호(풍경정화㈜ 대표)	30,000	최신행	18,000	최종열(경영대학 교수)	10,000
권청길(월드하우징 대표)	30,000	오명열	17,500	손태영(㈜케이씨 대표)	10,000
이근철(㈜삼정 대표)	30,000	강판수(㈜청강 대표)	15,000	정판덕(새부산관광 대표)	10,000
우한호(㈜파엔에이 대표)	30,000	구자용	10,000	이장생(㈜아남약품 대표)	10,000
이상환(세기아케마 대표)	30,000	이상일	10,000	박태복(㈜티비카본 대표)	10,000
김영주(유창중건설 회장)	30,000	이원태(㈜경일통상 대표)	10,000		
구자봉(㈜미라파크 대표)	20,000	최춘식(AMP동창회장)	10,000		

미리내 클럽(100만원 이상)

김정호(㈜경국 대표)	5,000	이해주(경제학 명예교수)	2,000	임정덕(경제학부 교수)	1,000
김일우(브릿지증권 지점장)	3,500	최정환(우성식품 대표)	2,000	송창년(대광닛볼㈜ 대표)	1,000
이정상(보생 대표)	3,000	박철병(성도회계 이사장)	2,000	장지환(성도회계 이사장)	1,000
박수만(웅진건설㈜ 대표)	2,500	방수한(AMP52 대표)	2,000	곽선화(경영대학 교수)	2,500
황보석기(AMP50 대표)	2,500	김영식(AMP 골프회장)	1,000	김태혁(경영대학 교수)	1,386
박용득(웅진건설 대표)	2,500	안태원(㈜한아 대표)	1,000	조영복(경영대학 교수)	1,800
류 열(일신산업 대표)	2,000	김상철(시티엔지니어 대표)	1,000	지성권(경영대학 교수)	1,500

등록금 한번 더내기

교원						동문			
최종열	1,500	하충룡	1,500	김진욱	1,500	김형우	1,500	김은홍	2,000
황규선	5,000	이균봉	1,500	이갑수	1,500	조현제	1,500	옥치장	2,000
곽선화	1,500	김호범	1,500	강원진	2,000	정윤재	1,500	박기순	1,500
김창수	1,500	신종국	1,500			김지완	4,500	정계섭	1,500
문병근	1,500	방호열	1,500			권혁태	2,000	김형진	1,500

단체 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12~57기 약 400,000

33기	27,000	41기	35,000	46기	23,000	51기	29,500	56기	17,000
36기	23,500	42기	26,500	47기	34,000	52기	21,500	57기	26,000
37기	29,500	43기	35,000	48기	29,500	53기	29,000	경맥 75동기	10,000
39기	30,500	44기	23,000	49기	29,500	54기	17,500	전문경영자 2,3기	10,000
40기	27,500	45기	32,500	50기	24,500	55기	26,500	MBA 37기	2,500

기관 출연

마라톤 후원금

33,269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김일곤 임정덕)	38,500	구자봉	10,000	MBA 34기~40기 김태곤 등 220여명
(재)울산발전연구원(원장 서근태)	29,000	이병길	1,000	AMP 45기~54기 박종영 등 80여명
농협 부산대지점(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주)신화사	1,000	Techno-MBA 1기~3기 권오중 등 24명

매월 자동이체 김유일(10만원, 2008년 6월부터)

경영대학(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이후 : 2010년 9월 ~ (단위 천원)

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내에 ‘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따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대상을 AMP과정만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지역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1인1계좌 갖기 운동·CPA1인1계좌 갖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금정클럽(1억원 이상)

정준수(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00	(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	---------	-----------------

웅비 클럽(1,000만원 이상)

김성자(베셀농산 대표)	10,000	안승(AMP 28대 총동창회장)	10,000	주영찬(AMP 60기)	10,000
김유일(경영대학 교수)	10,000	최종열(경영대학 교수)	10,000	2012 MBA원우회	10,270

미리내 클럽(100만원 이상)

문성욱(용원개발 대표)	5,000	황건호(전국투자협의회장)	1,000	진병수(AMP55)	1,000
김경희(AMP59)	5,000	이상필(AMP59)	1,000	김용오(AMP55)	1,000
송미란(MBA41)	5,000	김재오(AMP59)	1,000	김영식(MBA42)	1,000
박철병(성도회계법인 대표)	5,000	배근호(AMP59)	1,000	김동률(MBA42)	1,000
장지환(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5,000	최무림(MBA41)	1,000	문희준(MBA42)	1,000
김종민(한창엔지니어링 대표)	5,000	정동순(MBA41)	1,000	박미현(MBA42)	1,000
김정교(경영대학 교수)	3,000	문병혁(MBA41)	1,000	양길석(MBA42)	1,000
이상래(AMP59)	3,000	이우영(경영사 상무이사)	1,000	윤성차(MBA42)	1,000
민병권(AMP59)	3,000	손영표(mindsystem 대표)	1,000	조비승(MBA42)	1,000
정희자(MBA41)	2,000	최상문(경영대학 교수)	1,000	채창호(MBA42)	1,000
손 인(MBA동문회장)	2,000	김대철(AMP55)	1,000	최윤영(MBA42)	1,000
조규성(MBA42)	2,000	조강래(AMP55)	1,000		
임동찬(AMP61기)	3,366	이우식(AMP55)	1,000		

소액기부자(100만원 이하)

김종세(MBA42)	500	김정열(MBA 43)	400	반태욱(MBA 43)	200
전경준(MBA44)	500	곽지영(MBA 43)	300	이동은(MBA 43)	10

단체 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58기 15,000

강구철	권태구	김성자	김용규	김종률	김주영	문성희	박상환	이상기	이인희	이호형	최영만
강운형	김광식	김애숙	김인규	김종성	김혜정	박동천	윤창영	이은희	이창근	임춘우	허영숙

최고경영자과정(AMP) 59기 25,000

김경희1	김재오	김 진	박상현	배근호	성효선	이병원	이지연	정 희	최영근	황보문자
김경희2	김재환	김형태	박용만	백창흠	송진홍	이상래	장무애	조광제	최재균	
김동숙	김종남	류종국	박은희	서근석	이강은	이상필	정애기	차동락	허 현	
김명숙	김지혜	민병권	박종규	서중영	이미영	이준수	정운교	최병일	홍순옥	

최고경영자과정(AMP) 60기 30,000

강신옥	김승기	김용주	김학열	문삼출	송운섭	이명열	이현동	전홍길	최숙현	
김민서	김승주	김종배	노성철	민환기	오정구	이영희	임대욱	조일래	최정동	
김민재	김양구	김종현	류정형	박영이	오종환	이제두	임명희	차민근	한영호	
김성근	김영훈	김태명	류환옥	송국근	이경렬	이지영	전기도	최병오	홍대근	

최고경영자과정(AMP) 61기 46,000

강수범	김기홍	김이권	박동수	서강섭	안병완	이기삼	이인한	정순영	정정희	최기주	현명임
강순재	김동룡	문동춘	박봉관	성기호	오세원	이성우	이일광	정오영	정종진	최덕자	황병홍
강해숙	김성기	문진춘	박춘일	신원철	원명희	이용수	임동찬	정장식	조성제	허병호	
권정옥	김오기	문현재	박필선	안만현	윤춘식	이우영	장재활	정재화	지해용	허판오	

최고경영자과정(AMP) 62기 23,000

강종순	김명환	김철환	박지영	박태수	손태성	이창대	제미혜	조규봉	최금옥	하규식	하재혁
김광영	김정숙	문경숙	박태규	손일재	이부영	정금석	조국희	조영환	표강태	한성호	

경영 1인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 (계좌수)

교 수	강상훈(3)	김명종(1)	김진욱(1)	이찬호(3)	최상문(3)	동 문	김홍근(1)	김상철(2)	박인규(2)
	고광수(5)	김유일(10)	김창호(1)	이균봉(1)	최수형(1)		손 인(10)	전상우(5)	박기원(1)
	곽춘종(1)	김정교(1)	서문식(3)	이장우(3)	최종서(3)		김일우(3)	전광택(5)	김강수(1)
	김기석(1)	김종기(1)	엄철준(3)	장활식(1)	최종열(10)		김형석(2)	김두성(5)	부산상대효원회(10)
	김동일(1)	김진우(3)	옥기울(3)	조영복(3)	홍태호(3)		한미영(2)	김승태(5)	

CPA 1인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 (계좌수)

삼일 회계법인	이병찬(10)	허재혁(3)	박진호(1)	허태원(1)	김정동(1)	안진 회계법인	김휘학(5)	남일 회계법인	김동휘(3)
	정민수(5)	최정미(1)	성유득(1)	진은경(1)	이동계(1)		박일환(3)		장호일(3)
	조정환(3)	김병선(1)	이상후(1)	강현태(1)	이웅기(1)		공경태(1)		조용환(3)
	성낙필(3)	홍영표(1)	이주식(1)	손정화(1)	강현태(1)				
	공병진(3)	강병욱(1)	이지희(1)	박상욱(1)					
성도 회계법인	구태우(3)	권한수(1)	정원호(1)	이광희(1)		성도 회계법인	박근서(10)	동원 회계법인	나용주(5)
	오상표(3)	김도균(1)	조아라(1)	김민희(1)			예상우(5)		강명근(2)
	정동수(3)	문병현(1)	천정봉(1)	김영수(1)					

현물 기부

임동찬(AMP61기)	인터넷강의 수강권 300매(4,500만원 상당), 토익교재 250권(300만원 상당)
-------------	---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지원

박은주 (주)엘큐어	18,000	박창수 (주)씨에스티	12,000
------------	--------	-------------	--------

201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AMP

강병중(백선월석문화재단)	10,000	이영희(금호)	10,000	조성제(원광종합건설)	5,000
최병오(패션그룹형지)	10,000	이관길(AMP총동창회 회장)	2,000	AMP62기	3,000

MBA

손인(하나인치과병원)	10,000	경석회(OB)	500	류제민(메트라이프생명)	50
전상우(두산인프라코어부산)	10,000	옥미화(송원식품)	300	지대연(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50
강병춘(금오기전)	10,000	박기호(세광산업)	300	홍승표(로이드선급협회아시아)	30

상대동문회

김보두(부산상대동창회 회장)

경영대 교수

강상훈	230	서문식	230	옥석재	100
고광수	230	엄철준	230	최종열	1,000
김진우	230	옥기울	230		

재능기부

조광포토피아(사진촬영)	창미사(현수막)	만수출판사(전단지)
--------------	----------	------------



발전기금을 약정하시거나
출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
후기

효원경영 편집진에서는 가족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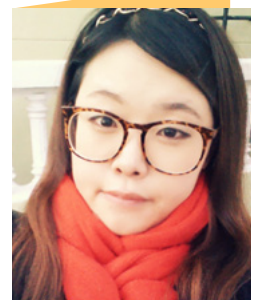
051 - 510 -1362 / amp@pusan.ac.kr



정정민
경영 09

효원경영 2,3,4호 편집부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배웠습니다. 후배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원고를 수정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부딪힘과 아쉬움이 함께 밀려옵니다. 효원경영 4호가 만들어지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특히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일들에 도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발로 뛰어준 문송이, 유송이 두 후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피곤한 여행길에도 불구하고 원한 행 야간열차 안에서 소중한 칼럼을 써 보내 준 이충현 선배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표지사진과 함께 늘 예쁜 교지 만들어주시는 Winners PT 디자인 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경영대학과 함께 더욱 새롭게 발전하는 효원경영이 되길 기원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2013년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4번째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 경영도 발간되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열심히 만든 소식지입니다. 경영 가족분께 현재 경영대학의 발전하는 모습들을 전하면서 선후배와 대학이 소통하기 위해 많은 선배님이 소식지 작업에 동참해주셨고, 경영대학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원 경영을 펼쳐 편집 후기까지 읽어주시는 지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3년에는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송이
경영 10



유송이
경영 11

이번이 벌써 두번 째 참여하는 교지입니다. 처음 편집 댄 이리저리 잘 모르고 일단 하고보자는 생각이었다면, 두번째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보충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눈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점점 완성이 되어가는 교지를 보며 부딪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언니들과 일을 할수록 팀워크가 쌓여 보다 편집을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어 참 즐거웠습니다.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편집일에 꼬박꼬박 힘써준 민이언니, 편집의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서 해준 송이언니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지편집에 도움을 주신 많은 동문 선배님들, 계속되는 요청에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발전된 '효원경영'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세요^^



PNU, the Premier!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659~60, 1678

팩스 051.581.8180

<http://biz.pusan.ac.kr>